



#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석유산업

金 乾 洽  
(本紙 편집인)

**세계**는 바야흐로 군사적 냉전사가 종식되고 「평화의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느낌이다. 세계는 세계사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와 소련연방의 와해,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치질서의 태동을 눈앞에 보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美國 주도하의 세계평화(Pax Americana)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이같은 해빙무드의 이면에서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은 인류에게 또 다른 불안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금의 세계는 한마디로 세계경제전쟁의 시대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자원전쟁, 해양전쟁의 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동서는 이데올로기와 제도 보다는 경제실리 우선의 경쟁으로 국가간에는 냉혹한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무력사회」에서 세계는 「산업기술형사회」로 국력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토플러나 다니엘 벨의 미래학적 예언이지만 제3의 기술혁명시대에 있어 군사적 대결성격은 무의미해지고 첨단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력 유무가 국력의 제1위의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문제의 권위자인 조지 케넌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군사적으로 美國과 더불어 초강대국이던 소

련은 이제는 美國의 적이 될수 없고, 美國 본토와 국민에 대한 위협은 경제적 위협인만큼 美國 제일의 위협국은 日本과 獨逸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이 냉혹한 국가이기주의시대, 국가간 생존확보를 위한 치열한 투쟁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세계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세계는 지역주의, 즉 지역간 협력으로서 현저히 「지역적 경제블록화」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美國과 日本을 의식하고 있는 유럽은 EC(유럽공동체)가 내년에 통합된다.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亞·태경제각료회의(APEC), 자유무역협정(EFTA)을 바탕으로 하는 北美경제권(美國·캐나다·멕시코)형성, 과테말라, 온두라스등 中南美 5개국의 단일경제권 아랍그레브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아프리카경제권등 세계는 5대 경제블록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세계사에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사의 흐름은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로, 지금은 아시아·태평양시대 즉 「팍스 에이시언·퍼시픽」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盧泰愚대통령의 유엔방문과 濠洲, 뉴질랜드, 멕시코 방문등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다자외교가 본격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아시아·태평양시대는 열리기 시작했다. 전세계 인구의 3분의2가 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軸으로 등장하고 있다.

日本경제연구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2000년의 日本 GNP는 전세계 GNP(41조 7천억달러)의 15.8%

(6조6천억달러)가 된다. 1960년대의 2~3%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1인당 GNP는 5만2천달러로 美國의 4만달러를 훨씬 앞지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 추산으로 보면 2001년에 GNP가 8천4백억달러, 1인당 GNP는 1만8천달러, 그것도 경제성장이 순조로울 때의 이야기다. 여하간 어

세계 석유 수급

(단위 : 백만B/D)

	1989	1990	1995	2000	2005
수 요	65.5	65.9	75.0	80.0	85.0
O E C D	37.6	37.6	40.6	40.4	41.5
東 歐 · 소 련	10.8	10.4	12.2	13.2	14.1
개 도 국	17.1	17.9	22.2	26.4	29.3
제 고	0.3	0.6	-	-	-
공 급	65.8	66.4	75.0	80.0	85.0
O E C D	15.9	15.8	15.1	13.7	12.2
東 歐 · 소 련	12.5	11.7	11.1	11.4	11.7
中 東	16.9	17.4	24.8	28.2	30.3
기 타 개 도 국	19.2	20.2	22.7	25.4	27.4
정 제 부 산 물	1.3	1.3	1.3	1.3	1.4

〈자료〉 IEA

른과 아이의 실력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턱없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앞으로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주요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로알더치셀의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1990년의 1천3백만B/D에서 1995년에는 1천5백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7차5개년계획(1992~1996)기간중 년평균 7.5%씩 증가하고 1차에너지공급에 있어서 석유의존도는 1990년의 53.8%에서 1996년에는 58.7%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1988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약 1천2백만B/D의 EC수요를 밑돌았다. 그러나 1990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1천3백만B/D를 상회한 반면 EC의 석유소비는 겨우 1천2백만B/D를 넘어서는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지역과 EC의 석유소비는 향후 더격차가 벌어져 오는 199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소비는 1천5백만B/D, EC의 석유소비는 1천2백50만B/D에 이를 전망이다.

로알더치셀은 오는 1995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시설이 1백95만B/D 정도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정제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1996년까지 상업정제시설 20%, 하이드로 크래킹 시설 58%, 카탈리틱 크래킹시설은 38%, 그리고 리포밍시설은 21%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996년까지 이 지역에서는 2백만~2백50만B/D의 정제능력 확대가 예상되며 아울러 고도화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는 韓國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泰國, 臺灣등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신규투자는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업정제시설과 석유제품수요 경질화에 대처키 위한 시설고도화에 맞춰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 교역규모는 2백만~2백50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유산업도 자율화·개방화의 흐름속에 경쟁원리가 수용되어가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정유업계는 경쟁력 강화가 최대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석유수요 증가와 수요구조의 경질화·저유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확대와 시설고도화도 국내 정유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는 이미 열리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좁은 국내시장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글로벌마케팅시대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나가야 하겠다.

아시아제국의 석유제품수요 추이및 전망

(단위 : 천B/D)

	석유제품	1989	1990	1995	소비증가율(%)	
					'90/'89	'95/'90
韓 國	휘발유	50	65	130	30.0	14.9
	경유	230	266	386	15.7	7.7
	중유	250	287	382	14.4	5.9
日 本	휘발유	736	773	888	5.0	2.8
	경유	600	653	783	8.8	3.7
	중유	772	791	763	2.5	-0.7
대 만	휘발유	85	91	121	11.5	5.1
	경유	69	73	101	5.1	6.9
	중유	113	112	124	-0.7	2.1
싱 가 포 르	휘발유	11	11	12	0.0	1.8
	경유	41	41	47	0.0	2.8
	중유	223	230	242	3.1	1.0
인도네시아	휘발유	98	n.a	n.a	n.a	n.a
	경유	212	n.a	n.a	n.a	n.a
	중유	55	n.a	n.a	n.a	n.a
말레이시아	휘발유	59	65	n.a	10.2	n.a
	경유	80	88	n.a	10.0	n.a
	중유	51	57	n.a	11.8	n.a
泰 國	휘발유	57	64	91	12.3	7.3
	경유	149	171	299	14.8	11.8
	중유	62	90	173	45.2	14.0

註 : 日本 에너지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임

(자료) 日本 旬刊 石油政策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시설 증설계획

(단위 : 천B/D)

	1991	1996	증 가	
			시설능력	증가율(%)
Crude Distillation	10,136	12,117	1,981	20
Reforming	1,241	1,502	261	21
Thermal Cracking/ Visbreaking	388	394	6	2
Hydro Cracking	316	498	182	58
Catalytic Cracking	1,022	1,415	393	38

(자료) Shell International Eastern Trading Co.

아시아諸國의 정제능력 (常壓蒸溜) 확충 계획

(단위 : 천B/D)

	1990	1995	2000
韓 國 - 기존	995	995	995
- 유공		200	200
- 쌍용		160	160
- 경인		150	150
- 극동		100	100
小計	995	1,605	1,605
日 本 - 기존	4,552	4,552	4,552
- 日石 등		212 + α	212 + α
小計	4,552	4,764 + α	4,764 + α
臺 灣 - 기존	543	543	543
- 高雄, 桃園 등		110	210
小計	543	653	753
싱가포르 - 기존	959	959	959
- SPC, ESSO 등		198	198
小計	959	1,157	1,157
인도네시아 - 기존	814	814	814
- EXOR1		125	125
- EXOR2			120
- EXOR3			120
- EXOR4			140
小計	814	1,079	1,319
말레이시아 - 기존	210	210	210
- MALACCA		230	230
- BINTULU			120
小計	210	440	560
泰 國 - 기존	243	243	243
- TORC		100	100
- BANGCHAK		40	40
- SHELL/CALTEX		260	260
小計	243	643	643
필리핀 - 기존	279	279	279
小計	279	279	279
아시아 諸國 合計	8,595	10,620	11,080

註 : 日本 에너지 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임.

〈資料〉日本 旬刊 石油政策

